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 『중간배당제』 도입

주가, 한층 탄력 예상

한국가스공사(사장 김명규)는 2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시행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3월 21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중간배당제의 신설을 계기로 그 동안 적극적인 배당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한 장기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전반적인 약세장에서도 최근 3년내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선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주가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스공사는 연간 이익의 대부분을 상반기중에 실현시키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라 수익이 불안정한 타업종에 비해 중간배당을 시행하는데 유리한 입장이어서 이번 중간배당제의 신설이 제도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중간배당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의 보급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1~18% 에너지절감 효과

산업자원부는 병원, 백화점, 아파트 단지, 컨벤션센터 등 집중적인 소규모 에너지 소비지역을 대상으로 소형 열

병합 발전을 통해 전기·난방·냉방을 일괄 공급하는 구역형 집단에너지(CES:Community Energy System)사업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은 난방위주의 기존 지역난방 사업과 달리 소형 열병합발전기를 이용해 난방뿐만 아니라, 전기 및 냉방을 일괄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에너지 공급방식에 비해 11~18%까지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다.

유럽 및 일본에서는 이미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을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롯데 호텔, 센츨럽 시티 등 대규모 빌딩 지역에서 이미 보급되어 가동 중에 있고, 2001년 대전 계룡대의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난방 시설 개제시 채택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소형 열병합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판매하도록 강제되어 있어, 난방열 및 냉방을 공급하는 수송기에 전력 공급이 어려워 전력 판매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연료인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가격이 높은 주택 난방용 요금을 적용받아 경제성이 낮아 활발한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의 확대 보급을 위해, 금년 중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자의 전력 수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차등화하여 CES 사업자에 대한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을 분산형 전원 사업으로 포함시켜 계획 수립시 의무화하고,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자가 비상시 受電할 경우 계약 용량 초과분에 대해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완화하며,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시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의 도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세녹스'는 첨가제로 위장된 '유사휘발유'

최근 유기상승분위기 틈타 대체에너지첨가제로 선전하며 불법영업행위 자행

2002년 6월이후 알콜연료, 대체에너지, 첨가제 등을 주장하며 국내휘발유 시장에서 시판되다 정부의 단속으로 잠잠하던 소위 '세녹스'가 02년 10월부터 별도의 판매소를 통해 플라스틱 통 등을 이용하여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유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불법판매 확대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산자부는 "세녹스를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 ▶ 전형적인 "유사휘발유"로서 불법제품이며,
- ▶ 현재 휘발유와 동액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 ▶ 세금액이 총매출액보다 큰 기형적 손익구조를 갖고 있으며,

▶ 국내휘발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고,

▶ 비정상적인 판매로 취급상 화재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자, 판매자 모두 석유사업법 위반이 되고, 처벌대상이며 실제 처벌이나 행정조치를 당했거나 진행중이라고 하면서 현재, 사용자 처벌규정과 행정처분 규정이 다소 미비한 점 등을 조만간 보완하여 세녹스유통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난방용 심야전력(갑)의 신규 수요 억제

고급주택, 여관, 목욕탕 등 제한

산업자원부는 한전이 2003년 2월 15일부터 난방용 심야전력(갑) 신규 신청자에 대해 50kw초과 설비는 신청을 받지 않고, 현재 10kw이하 설비는 면제하고 있고, 10kw초과 설비는 10kw 해당액을 면제해 주고 있는 표준공사비를 부담케 하여 심야전력 수요를 대폭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수용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진행중이거나 설계에 착수한 Project와 양로원·고아원·학교와 같은 사회복지·교육시설, 난방용 심야전력(을)은 종전대로 시행된다.

이번 50kw초과 수용기의 신규 제한으로 앞으로 고급주택이나 여관·목욕탕 등은 심야전력의 사용이 제한되나, 현재 사용자가 가장 많고 가스배관이 들어가지 않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신규 주택에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전력산업기반기금활용 전력수요관리홍보



전기요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전기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높은 전기요금이 적용됩니다.
생활주변에서 손쉬운 절전실천!
절전형 제품 선택과 효율적인 사용에 있습니다.
"겨울철 실내적정 난방온도는 18~20℃입니다."

우리집 생활속의 절전지혜!

일 고 보 면 쉬 위 요

- ▶ 컴퓨터: 컴퓨터는 에너지절약 마크가 부착된 고효율제품의 선택사용과 근무시간 내내 켜 있지만 하루 4시간 정도 사용으로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모니터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모니터 절전 기능을 추가시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세탁기: 세탁물은 섬유, 종류, 유색물과 흰색 등으로 분류하여 세탁 분량만큼 10분정도로 세탁하고 헹구기 전에 반드시 탈수를 하고 탈수 시간은 3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 ▶ 냉장고: 냉장고 안의 음식물은 용량의 6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식힌 후에 보관합니다. 냉장고의 문은 자주 여닫지 않습니다
- ▶ 텔레비전: 출근하는 시간을 알기 위해 TV를 켜놓지 말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시청하며 보지 않을 때에는 꼭 고고 플러그를 뽑습니다
- ▶ 조명: 백열등은 전구식 형광등으로 교체하면 70~80%의 절전이 되고 수명도 연장되며, 오래된 형광등과 백열등은 고효율조명기구로 교체하고 전구와 반사각의 먼지를 자주 닦아줍니다.
- ▶ 전기발열: 전기발열에 표시된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열판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고 취사시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 취사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다리미: 다리미질 옷감은 가능한 한 모아서 다리미, 옷감의 종류에 따라 온도를 알맞게 맞춰 사용하되 손수건 등 얇은 옷감은 스위치를 끄고 남은 열을 이용합니다
- ▶ 청소기: 사용하기전 큰 쓰레기는 미리 걸고, 필터는 자주 청소하며, 호스와 청소기 본체로부터의 공기누설이 없도록 하고 청소면에 따라 속도를 변형하여 사용합니다

에너지와 환경, 인간을 생각하는 에너지절약 실천! <http://www.kemco.or.kr>

또한, 그동안 공사비가 면제되었던 5kW이하 설비는 151천원, 6kW에서 10kW까지는 222~503천원을 부담하고, 일부 면제를 받았던 10kW이상 설비는 503천원의 공사비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예) 20kW 설비의 공사비 : 종전 704천원 → 변경시 1,206천원

심야전력 제도는 85.11월에 도입된 것으로 당시 전기사용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22:00~08:00)에 유연탄·원자력 등 기저발전설비의 이용율을 높여 발전 설비의 경제성을 높이고 축열식 난방과 냉방 설비 사용자에게 기저발전 원가 수준의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 부지 발표

1년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부지 확정 예정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4일 동해안 영덕군 남정면, 울진군 근남면 지역과 서해안 영광군 홍농읍, 고창군 해리면 등 총 4개 지역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보 부지로 선정 발표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후보부지로 선정된 4개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금년 내에 자율적 유치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적으로 부지선정 과정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18기의 원전을 가동중에 있으며, 건설중인 2기 이외에 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015년까지 8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은 국내 총 전력의 40%를 담당하는 최대 전력 공급원으로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이며 특히,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 있어 화력발전에 비해 발전 원가가 저렴한 원자력발전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원전 등 원자력의 이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전 운영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원전 내의 임시저장 시설은 2008년부터 포화가 예상되어, 원전의 정상적인 가동을 통한 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적기 건설이 긴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98년 수립된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에 따라 지난 2000년 7월부터 1년간 부지공모를 시행하였으나 일부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유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부

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에너지 낭비의 주범은 고급 대형 승용자동차

3,000cc 이상 대형차의 연비는 경차의 절반 수준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가 2001~2002년 배출가스 인증 검사 결과를 통해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배기량 3,000cc 이상인 대형 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6.9~8.3 (km/L)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보다 연료 소모량이 2배 이상이었으며, 특히, 5,0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갖는 일부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경차보다 4배이상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 있어서는 3000cc 이상의 대형자동차가 경차보다 평균 2배, 최고 3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휘발유 자동차의 1일 평균 주행거리는 42.2(km/일)(주1)로서, 1년 동안 소비되는 연료비는 경차의 경우 1,326(천원/년), 대형 자동차의 경우 2,412~2,902(천원/년)이며(주2),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경차의 경우 2.6(톤/년)인데 반해 대형 자동차의 경우는 4.5~5.7(톤/년)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경차 대신 대형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연간 1백만원 이상의 연료비 추가 부담 및 지구온난화 측면의 악영향이 예상되며, 또한 향후 예상되는 유가인상에 따라 연료비 추가 부담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유사, 17일부터 기름값 인하

석유수입부과금 인하조치 발맞춰

SK(주) LG칼텍스정유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3사는 정부의 2단계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석유수입 부과금 인하(ℓ 당 6원) 조치에 발맞춰 지난 17일 0시를 기해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ℓ 당 7원씩 일제히 인하했다.

정유사별 주유소 공급가격(세후 공장도가격) 인하 내용을 보면 SK(주)는 휘발유 1ℓ 당 종전 1271원에서 1264원으로, 실내등유 599원에서 592원으로, 보일러등유 584원에서 577원으로, 경유는 768원에서 761원으로 각각 내렸다.

LG칼텍스정유도 이날부터 휘발유 1271원에서 1264원으로, 실내등유는 599원에서 592원으로, 보일러등유

에너지를 절약하라

585원에서 578원으로, 경유 768원에서 761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현대오일뱅크의 경우도 휘발유 1294원에서 1287원으로, 실내등유 608.85원에서 601.85원으로, 보일러등유 593.85원에서 586.85원으로, 경유는 778원에서 771원으로 내렸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측은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국내유가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을 ℓ 당 6원씩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과금 및 부가가치세 하락분을 전액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 ℓ 당 7원씩 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

한국형 배연탈황설비 35만kW 급으로 격상 적용 예정

서부발전 평택화력 1호기 대상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영철)은 지난 4일 본사 회의실에서 평택화력 1호기에 적용되는 한국형 배연탈황설비 설치공사 사업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자원부, 한전 전력연구원 및 한국전력기술(주)의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 추진 일정등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또 동북아 에너지협력 및 참여 정부의 전력허브국가 실현 의지에 크게 이바지할 신기술인 한국형 배연탈황설비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국가핵심기술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는 한국형 배연탈황설비는 영동화력과 서천화력 20만kW에 적용,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평택화력 1호기에 적용되는 35만kW급 배연탈황설비는 국내 최대의 격상연구 추진 설비이다.

<에너지경제>

광고게재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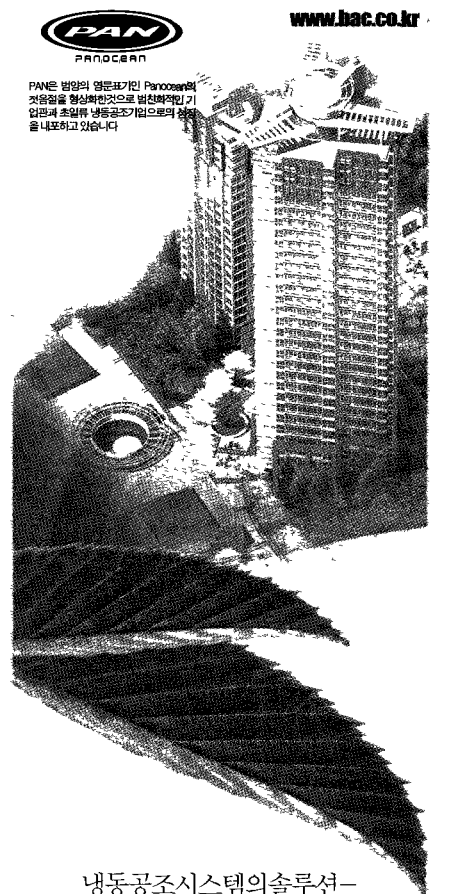
T.(02)2679-6343



보일러, 냉동기, 배수기, 배수기, 배수기
저수조, 세정 및 방수도장 사업부
에너지절약기기 교체 사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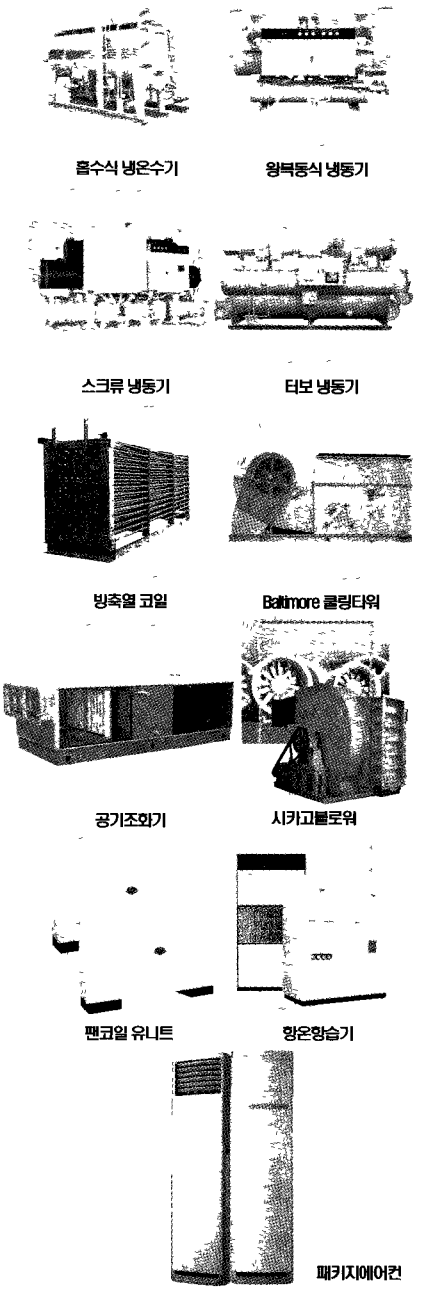
(株)에스 플랜트 ENG

T.(02)2646-1117(대)
F.(02)2646-0728



냉동공조시스템의 솔루션- 판오션 에어컨

건물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범양냉방공업주식회사
▶ 고객상담실 : (02)401-4321, 555-0101(교:761~763)
♣ 클로버서비스 : 080-022-8815-6